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7. 12. 26(화) / 총 3매(본문3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	담당자	• 과장 김용원, 사무관 정상태, 주무관 김규희 • ☎ (044) 201-4232, 4233, 4238
	인천국제공항공사	담당자	• 보안검색팀장 이종규, 여객정보팀장 서은정 • ☎ (032) 741-5642, 5566
보 도 일 시		2017년 12월 2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6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인천공항 수하물처리 빠르고 똑똑해진다

- 12.27일부터 공항 키오스크에서 탑승권과 위탁수하물 꼬리표 발행
- 미국발 환승객 70만명 위탁수하물 이중검색 완화 적용

□ 지금까지 항공사 직원만 수속카운터에서 발행할 수 있었던 위탁수하물 꼬리표를 승객이 키오스크에서 직접 출력하여 항공사 전용 카운터에 위탁 처리하는 「셀프수하물처리」가 12.27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시작된다.

【셀프수하물처리절차】

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인천국제공항공사(사장 정일영)는 지난 3월부터 셀프수하물처리 도입을 위해 제도개선, 키오스크 발권기능 등을 완료하고 아시아나항공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한다. 대한항공을 비롯한 다른 국내 항공사 및 외국적 항공사도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운영이 시작된 후 동일한 서비스를 점진 확대할 계획이다.
- 셀프수하물처리의 핵심은 지금까지 항공권 발행만 가능하던 키오스크의 기능을 개선하여 수하물꼬리표 발행도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.

- 앞으로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사 수속 카운터 근처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항공권과 수하물 꼬리표를 직접 출력한 후 셀프수하물처리 전용카운터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짐을 부칠 수 있다. 이럴 경우 수하물 처리시간이 기존에 비해 약 30% 감소*할 것으로 기대된다. 인천공항공사는 최초 시행에 따른 승객 혼선을 줄이고자 키오스크에 안내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다.

* 싱가포르 창이공항 위탁수하물처리 소요시간 115→85초로 감소(IATA 자료)

- 아울러, 인천공항공사는 제1·2여객터미널 모두에 수하물 꼬리표 발급이 가능하도록 총 170여대 키오스크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, 참여 항공사도 늘어나 셀프수하물처리가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.
- 또한, 미국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위탁 수하물에 대한 환적보안검색을 면제하는 「미국발 환적수하물 보안 검색 면제」 대상 공항이 확대되어 수하물 연결로 발생하는 항공기 운항지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.
-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뉴욕공항을 시작으로 대상공항을 시카고, 샌프란시스코, 호놀룰루, 애틀랜타, 시애틀까지 6개 공항으로 늘렸으며, 올해 12.27부터는 미국발 환승객이 가장 많은 LA공항과 미국 수도 워싱턴의 덜레스공항까지 확대하여 연간 약 70만명의 미국발 인천공항 환승객의 여객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동 제도 시행 전에는 환적수하물 미탑재 사례가 매년 약 8천건 발생했고, 이에 따른 항공기 운항지연(1.9천대, 평균20분) 및 승객불편(30만명)이 불가피 했으나, 제도 시행 후 수하물로 인한 항공기 운항지연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.

-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항공보안을 확보함과 동시에 승객편의 증진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있는 항공보안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김규희 주무관(☎ 044-201-42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